

##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이전 반대 결의안

(이복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5. 11. 19.

발 의 자 : 이복희 · 김영길 · 강혜순 ·  
권태호 · 김순점 · 이효상 ·  
서경환 · 신성봉 · 천병태 ·  
김경환 · 하경숙의원(11명)

#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이전 반대 결의안

(이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5. 11. 19.

발 의 자 : 이북희·김영길·강혜순·  
권태호·김순점·이효상·  
서경환·신성봉·천병태·  
김경환·하경숙의원(11명)

##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 2. 제안이유

가. 울산시가 최근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예정지를 부지 협소 등의 이유로 중구 북정동 옛 울산초등학교에서 우정혁신도시 내 에너지·R&D클러스터 용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 울산시립미술관 건립부지는 지난 2012년 9월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 등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는 등 원도심 주민들의 기대감이 남달랐지만 갑작스런 부지 변경안으로 인해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주민 대의기관인 중구의회도 원도심의 활성화와 시립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현재 부지에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부지 이전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 2. 주요내용

가. 울산 중구의회는 울산시립미술관의 혁신도시를 비롯한 그 어느 곳으로의 부지변경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당초 계획대로 현 부지에 건립되길 희망한다.

나. 울산 중구의회는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과 조화를 이룬 시립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건립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중구의회를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 3. 기타사항

○ 보낼 곳 : 울산광역시

##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이전 반대 결의안

울산시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부지를 우정혁신도시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 중구의회는 25만 구민과 함께 울산시립미술관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지난 2012년 9월 옛 울산초등학교 부지를 건립예정지로 발표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중구민 모두가 한데 어울려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일이 었그제 같기만 하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건립예정지를 손바닥 뒤집듯 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러려고 100년 넘는 역사와 전통의 울산초등학교까지 이전시켰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선정 후 중구 원도심은 눈에 떨 정도로 변모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구 원도심에는 화실과 화랑 등 지난 3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업소만도 40여곳 넘게 자리를 잡으며 명실상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문화의 거리가 조성돼 있다.

특히 중구청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문화의 거리 육성을 비롯,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전선지중화사업, 간판개선사업 등 각종 정책을 활발히 펼쳐 왔으며 최근에는 원도심 골목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도 수립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원도심을 울산의 문화 1번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같은 원도심의 활력과 변화는 구청의 지원과 함께 미술관이 건립되길 간절히 희망하는 원도심 주민들을 비롯한 25만 중구민의 의지와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진 못할망정 건립예정 부지를 변경하겠다는 행정적 발상은 자칫 중구민은 물론 120만 울산시민 모두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울산시는 현재 객사터가 발굴된 시립미술관 예정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술관이 반드시 웅장한 규모로만 건립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관람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히 찾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문화의 향유가 비교적 쉽지 않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언제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미술관이 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혁신도시에 비해 원도심이 최적지가 아닐 수 없다.

동 떨어진 공간에 제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건물로 치장한다 해도 사람이 찾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게다가 울산시립미술관이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미술품을 소장하지 않는 이상, 현재 검토되고 있는 혁신도시 부지에 건립되면 독창성을 잃은 그저 그런 수준의 미술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울산시는 부지 변경 계획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분열만 야기하기에 앞서 현재 부지에서 발굴된 객사터와 함께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룬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미술관을 만들지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진지한 고민을 나눠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울산 중구의회는 25만 구민의 뜻을 모아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변경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 중구의회는 울산시립미술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 그 어느 곳으로의 부지 변경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하나. 울산시립미술관은 당초 계획대로 현재 부지 등 원도심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하나. 울산 중구의회는 울산시립미술관과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이 함께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건립계획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울산시는 울산시립미술관이 25만 중구민과 울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중구의회와 원도심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2015년 11월 19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